

학부제하의 전공 선택 지도

진 인 주 | 인하대 교무처장

I. 학부제의 취지와 실제 현실

한 개인에게 있어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전공은 곧 사회에서의 직업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한 개인의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과별 모집제도하에서 입학생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부제 시행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인하대학도 여기에 발맞추어 1995년부터 일부 공과대학에 학부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에 의과대학과 사범대학을 제외한 전 대학의 모집단위를 학부제 체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학부제가 수요자인 학생들의 자유로운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종래의 학과별 모집이 야기한 전공 선택의 문제점을 하루 아침에 일소할 것은 아니다. 학부제의 실시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타난 제도이지만, 이 제도는 몇몇 인기 전공에 대한 편중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더욱 조장했기 때문이다. 기초학문의 몰락과 대학의 본질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언제나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며, 학부제 도입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학부제는 대학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 사회의 여건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런데 이 취지는 대학의 본질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의 교육과 전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전수와 새로운 지식의 창조에 있다는 사실과 현실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공 편중에 따른 순수학문의 위기가 특정 대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부터 지방대학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이 작은 지면을 통해서 학부제 하에서 전공 선택 지도시 필자의 대학이 체험했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대학교육의 나아갈 더 나은 방향을 다 함께 모색해 보려는 생각 때문이다.

II. 합리적 전공 배정과 전공 선택의 시기

학부제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

하여 실시된 제도이다. 그러나 어느 특정 전공으로 학생들이 대거 편중될 경우, 실질적 수용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하대학에서는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의 활용은 우리 학생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적극 권장되고 있다. 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해서 인하대학은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하향 조정하였고, 재학년한 제한을 철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점에 관계 없이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듈화된 강의시간표를 제공하여 복수전공시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1997학년도에는 81명에 불과하던 복수전공자가 2001학년도 1학기에는 31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수전공과 더불어 다양한 연계전공을 개발한 것 역시 학생들의 전공 선택 지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인하대학에서는 국내 최초로 Techno-MBA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1997년에는 국제통상 전문가 과정을, 1998년에는 첨단정밀 전공을, 그리고 2000년에는 금융분석 과정, 정보분석 과정, 문예창작 과정을 연계전공으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모두 12개의 연계전공이 학생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전공 운영과 함께 전공 선택의 시기 결정도 학부제하의 전공 선택 지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하대학에서는 각 전공의 학문적 특색에 따라 전공 배정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공 배정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내 홈페이지의 희망 전공 신청양식에 3~5지망까지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학업성

적표, 학업계획서, 적성검사 결과서, 특정과목 성적 등을 전공승인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공과대학과 법과대학은 각 전공간에 학문적 호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4년간 학부 소속 상태에서 교육을 받은 후 졸업시 적절한 전공을 인정받도록 하였으며, 이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3학년 진급시에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학문적 독자성이 가장 강한 문과대학의 경우는 외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학년 진급시에 전공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공교육과정 운영의 충실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다.

Ⅲ.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방안 강구

진정한 의미의 전공 선택권 보장은 학생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 희망 전공의 성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공을 선택할 때 비로소 전공 선택권은 올바르게 보장된다. 더구나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으나 지식에 대한 사랑은 오직 따스한 인간적 접촉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헨리 반 다이크(Henry Van Dyke)의 말을 상기해 볼 때, 교수의 개별적인 학생지도가 지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인하대학은 '98년도부터 과감하게 학생의 적성과 희망을 중심으로 교육 수혜자의 진로를 지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학부제의 실시로 인하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은 보장되는 반면, 전공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로 인한 대학 생활 지도방안이 부재했던 만큼,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된 것이 '1학년 담임교수제'와 '전담지도교수제'이다.

1학년 담임교수제는 '전공탐색 세미나'를 통하여 학생들이 적성과 희망에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하대학에서는 이 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담임교수만을 선정해 주었을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위해 교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강좌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강의 중심의 강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의 시간과 장소는 교수의 제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공 탐색과 진로에 대한 지도 외에도 인성함양과 대학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까지 지도하고 교육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학생들의 사고에 조용하면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저 막연한 사회적 인기여 편승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성향이 농후하였다. 그러나 이 강좌를 통하여 실시된 적성종합검사, 인성검사, 욕구진단검사, 다면적 인성검사(MMPI), 흥미검사 및 창의성 검사 등과 같은 각종 과학적 검사를 통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자이를 발견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습자가 자신의 적성과 인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막연히 중국어나 일본어를 전공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던 문과대학 1학년의 한 학생이 이 '전공탐색 세미나'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이 언어가 아닌 철학적 사고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진로를 바꾼 경우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인하대학의 전담지도교수제는 학생의 전공 결정과 함께 학생이 선택한 지도교수가 학생의 학업과 전공에 관한 조언, 진로 선택은 물론 졸업 후에 부딪치는 문제까지 상담해 줌으로써 실재는 일종의 평생지도교수제라고 할 수 있다. 인하대학에서는

이같은 전담지도교수제를 '9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학생지도를 보다 용이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담지도교수제의 골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공결정과 함께 모든 학생은 해당 학부(과) 교수 한 분을 전담교수로 지정 받는다. 이 때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교수를 전담지도교수로 선택할 수 있다.
- 전담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의 학업, 전공과 진로 선택은 물론, 졸업 후의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는 평생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 전담지도교수는 그 상담 내용을 학생 면담용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면담용 프로그램은 상담 횟수, 일시, 상담 내용 및 상담 예정일, 다음 번 상담시 고려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IV. 전공의 선택과 이수에 필요한 교과과정 마련

올바른 전공 선택 지도를 위하여 인하대학에서는 학부의 교양필수 이수학점인 42학점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이수하게 하고 있다. 즉 희망 전공을 사전에 학습해 보는 '전공탐색 영역', 해당 학부의 전공학문 학습에 필요한 특정 기초학문을 다지는 '계열기초 영역', 이공계 분야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수학·과학 영역', 해당 학부에서 바람직한 교양과목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순수교양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집단위별로 전공 학문의 독자성과 특성에 따라 필요

한 영역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편중된 교양교육을 막고 전인적인 지식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과목을,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양과목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는 교차교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양교육과정이 전공교육과정과 최대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공교과과정은 하위 교과목과 상위 교과목으로 다시 구분하여 학문의 수위 조절을 통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교육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 전공의 경우, 1~2학년 학부교양필수로 42학점을 이수한 학생이 3학년에서 기계공학부 공통전공과목을 이수한 후, 4학년에서 항공우주공학 전공 상위과목을 이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항공우주공학 교육인증(ABEEK)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문과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엔 1학년 학부공통과정에서 기초 프랑스어를 배우고, 2학년 전공과정에서 하위 핵심 교과목과 하위 보충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3~4학년에서는 문학, 어학, 언어학 영역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다층 체계의 교과과정은 학부제에서 다양한 전공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최소 전공 이수학점을 하향 조정한 것이 초래할 수 있는 전공교육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습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준 차이를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그 교육적 효과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V. 편중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

학부제 실시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학문적 편중화 현상일 것이다. 학문의 편중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학문의 기형적 발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문 선택 기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학부제 자체가 기초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기피를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동시에 계속되는 경제적 악재 때문에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이 학문적 편중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기초학문 보호정책이 담긴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것과 전공배정 이전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초학문에 대한 보호정책의 일환으로써 인하대학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보완하고 있다. 대학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대부분은 일정한 전통과 권위를 지닌 것들이며, 특히 기초학문 분야의 교과목은 다수가 시대의 조류보다는 학문적 필요성 때문에 개설되는 것들이다. 그런만큼 수강 학생의 과다가 그 강좌의 존재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인식 하에 인하대학 교무처에서는 기초학문 보호를 위하여 전공 교과목의 폐강 기준을 1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수강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전공 교과목인 경우에도 매 학기 10개 교과목까지는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 교양필수 과목에 기초학문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기초학문 분야의 자체적 노력도 인기학문 편중 현상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기초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실용학문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교무처와 해당 전공이 함께 노력한 결과 문과대의 철학 전공, 독어독문학 전공, 불어불문학 전공 그리고 이과대의 수학 전공과 물리학 전공과 같은 순수 기초학문 분야의 전공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의 격차가 가장 극심했던 문과대학에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공 선택의 편중화 현상이 점차 진정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1>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학과별 전공학생 수


학년도	국어 국문학	일본어 일본학	중국어 중국학	불어 불문학	독어 독문학
2000	55	85	75	25	22
2001	51	83	71	42	23

끝으로 인하대학교가 기초학문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할 예정에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초학문 분야의 자체 발전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지원(실시 중)
- 기초학문 분야 교수들로 구성된 Team Teaching 교과목 개발(실시 중)
-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간의 학제간 연구 적극 장려(실시 중)
- 기초학문 분야의 교수 연구진흥비 지원 강화(실시 중)
- 기초학문 분야 전공자를 위한 장학기금 증대(추진 중)

- 기초학문 분야 전공 교과목의 폐강 기준 인원 조정(실시 예정)

VI. 교육에 왕도는 없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학부제하에서의 전공 선택 지도를 위한 특별한 지침이나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 다른 대학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인하대학의 실례에 비추어 정리해 본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백년대계의 교육에 유일한 왕도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기술한 학생들의 합리적인 전공 선택을 도와주는 다양한 지도와 노력이 반드시 최선의 길이라거나,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하대학 나름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본격적인 교육의 시작 혹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학부제가 야기한 당면의 문제 해결에 투자한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능동적이고 품위 있는 지성인 양성을 위해 쏟을 것이다. 

진인주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화학공학 석사 학위, 미국 MIT 대학에서 고분자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IBM 연구원, 매세추세츠 대학 방문교수, 인하대 임시 부처장을 지냈으며 현재 인하대 교수로서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커패시터의 접착향상 메커니즘 연구", "PLA-PEO 블록 공중체의 상용화 효과에 관한 연구" 등 환경 친화성 고분자 개발, 고분자 계면·표면 현상에 대한 다수의 연구 논문이 있다.